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척추

논문제목 척추 전이 종양 환자에서 금속기기 및 골시멘트 보강을 통한 고정술

영문제목 **Bone cement augmentation after corpectomy in Metastatic spinal tumors**

발 표 자 김정환

책임저자 정성수

저 자 정성수, 박세준, 강준희, 김정환

기 관 명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서론 : 골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많은 것은 전이성 종양이며 그 중에서도 척추에서 발생하는 전이성 종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에 발생한 전이성 종양에 대한 치료는 원발 종양의 방사선치료에 대한 민감성, 척추의 불안정성, 신경학적 증상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환자의 전신 상태 및 기대 수명 등의 요인으로 수술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들은 척추전이종양 환자에서 단순 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종양제거에 의한 골결손부에 대해서는 골시멘트만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골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 중 가장 많은 것은 전이성 종양이며 그 중에서도 척추에서 발생하는 전이성 종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에 발생한 전이성 종양에 대한 치료는 원발 종양의 방사선치료에 대한 민감성, 척추의 불안정성, 신경학적 증상의 진행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기도 하다. 그러나 환자의 전신 상태 및 기대 수명 등의 요인으로 수술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저자들은 척추전이종양 환자에서 단순 감압술 및 기기고정술을 시행하고 종양제거에 의한 골결손부에 대해서는 골시멘트만으로 보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결과 : 조사 기간 중 총 50명의 환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자는 26명 여자는 24명이었고 평균 나이는 57세(26~76)였다. 전이 부위는 경추부가 14례, 흉추부가 14례, 요추부가 17례였으며 이행부가 4례였다. 평균 수술 시간은 206분(50~435분)이었으며 수술 중 평균 실혈예측량은 1670ml(50~9000ml)였고, 수술 후 평균 생존 기간은 13개월(1주~52개월)이었다. 2례(4%)에서 수술 부위의 재발이 발생하였으며, 2례 모두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1례에서는 수술 부위 외의 척추부 전이로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골시멘트의 침하는 8례(16%)에서 발생하였으며 침하의 정도는 평균 2.875mm(1~7mm)였다. 2례(4%)에서 나사의 해리가 발생하여 그 중 1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금속고정물의 파괴나 수술부위 감염이 발생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추부와 흉추부, 요추부로 환자군을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 평균 수술시간은 경추부 120시간, 흉추부 243시간, 요추부 232시간이었고 평균 실혈예측량은 경추부 592ml, 흉추부 1660ml, 요추부 1726ml였으며, 평균 수술 후 생존기간은 경추부 8개월, 흉추부 10개월, 요추부 14개월이었다.

결론 : 척추전이종양 환자에서 전이부 척추체 제거술 및 골시멘트 보강술과 금속기기를 이용한 고정술을 시행하였을 때 골시멘트의 경한 침하 외에는 합병증의 발생 빈도가 낮았다. 추후 금속 케이지 및 골이식 등을 이용한 고정술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cknowledgment :

척추 전이 종양, 수술, 골시멘트